

2026년 2/4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보고서

2026. 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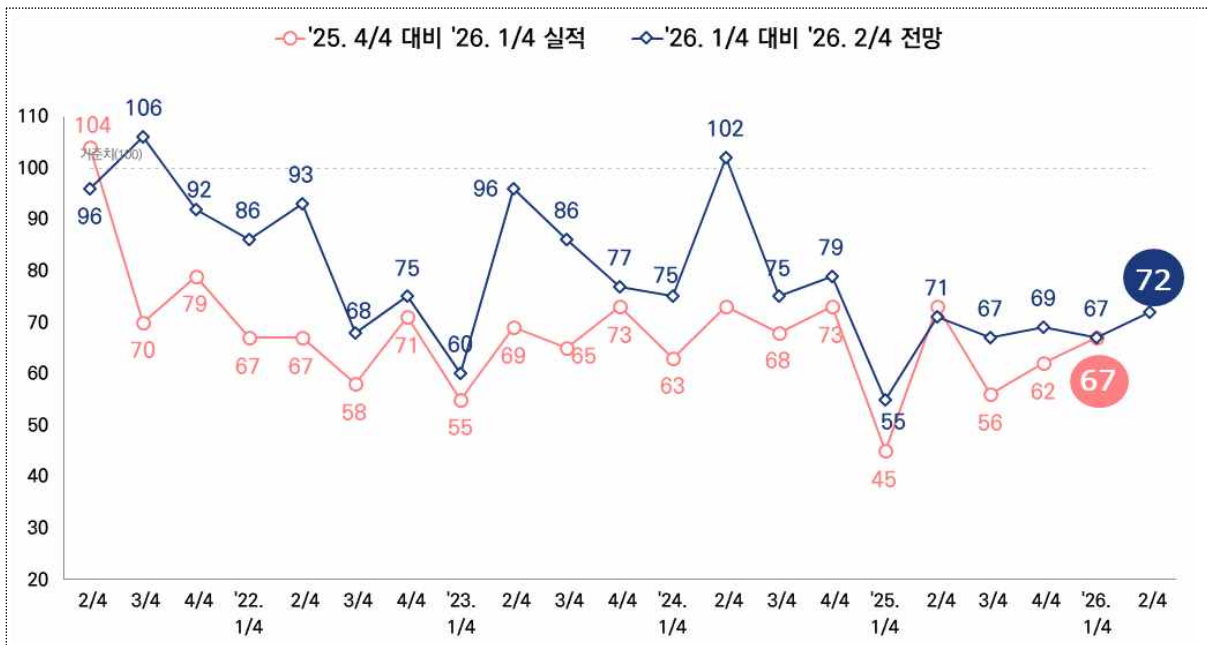
INCHEON CHAMBER OF COMMERCE & INDUSTRY

조사결과

1. 2026년 2/4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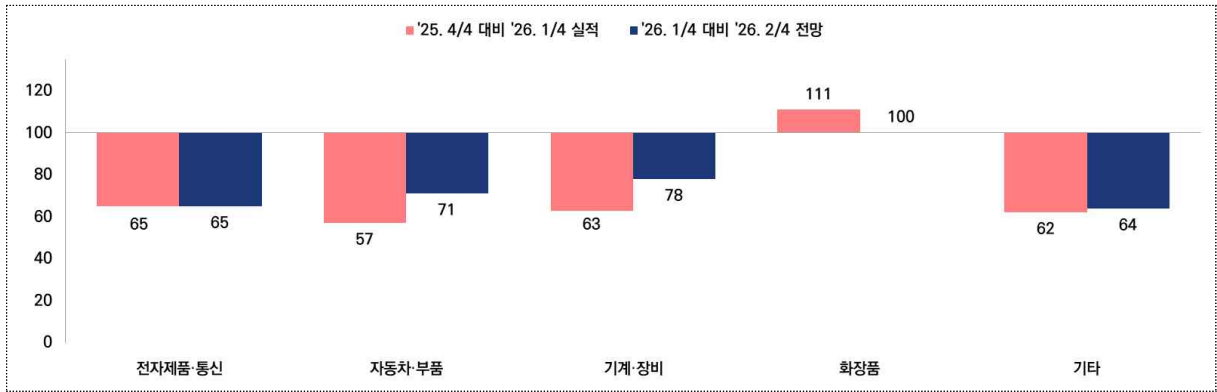
- 인천상공회의소(회장 박주봉)가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2026년 2/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조사’ 결과,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2/4분기 전망 BSI는 ‘72’를 기록함
-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(100)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6년 2/4분기 경기도 지난분기(BSI 67)에 이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
- 시장 수요 악화, 에너지·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의 상반기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중동 전쟁에 따라 채산성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2026년 2/4분기 역시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
<그림 1> 체감 경기 BS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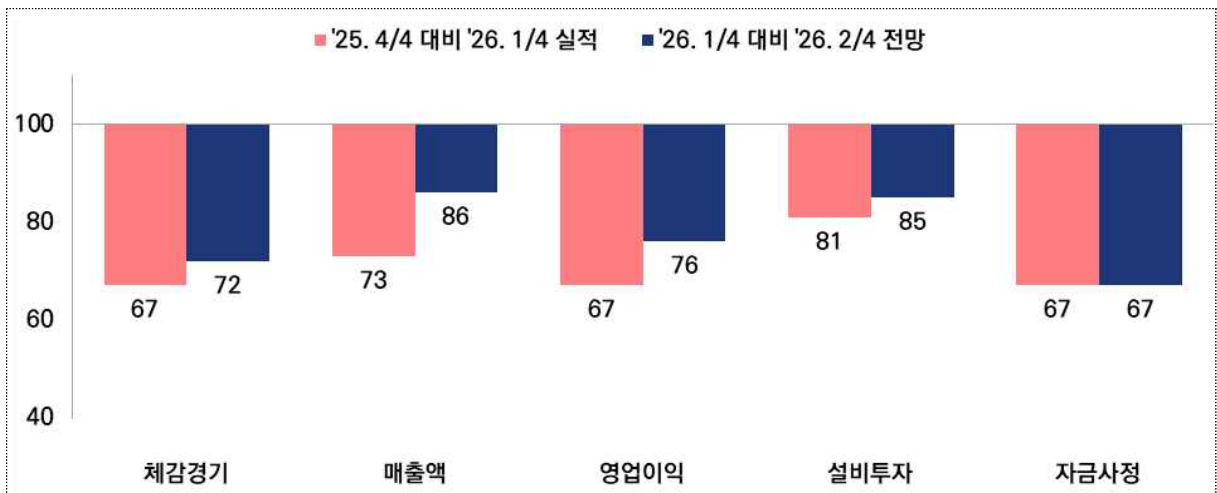
- 2026년 2/4분기 주요 업종별 경기전망을 분석한 결과, 「화장품」(BSI 100) 업종은 지난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「기계·장비」(BSI 78), 「자동차·부품」(BSI 71), 「전자제품·통신」(BSI 65) 등 업종은 지난 분기에 이어 경기 둔화가 우려됨

<그림 2> 주요 업종별 경기 BSI



- 2026년 2/4분기 경영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「매출액」(BSI 86), 「설비투자」(BSI 85), 「영업이익」(BSI 76), 「자금사정」(BSI 67)으로 모든 부문이 기준치 '100'을 하회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경기 부진이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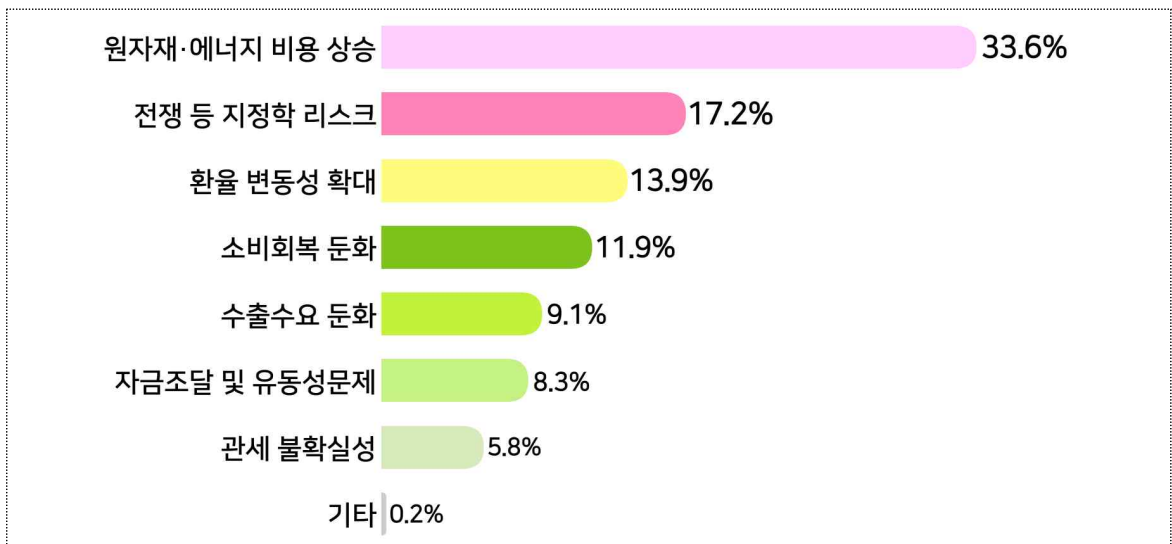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부문별 경기 BSI



2. 2026년 상반기 경영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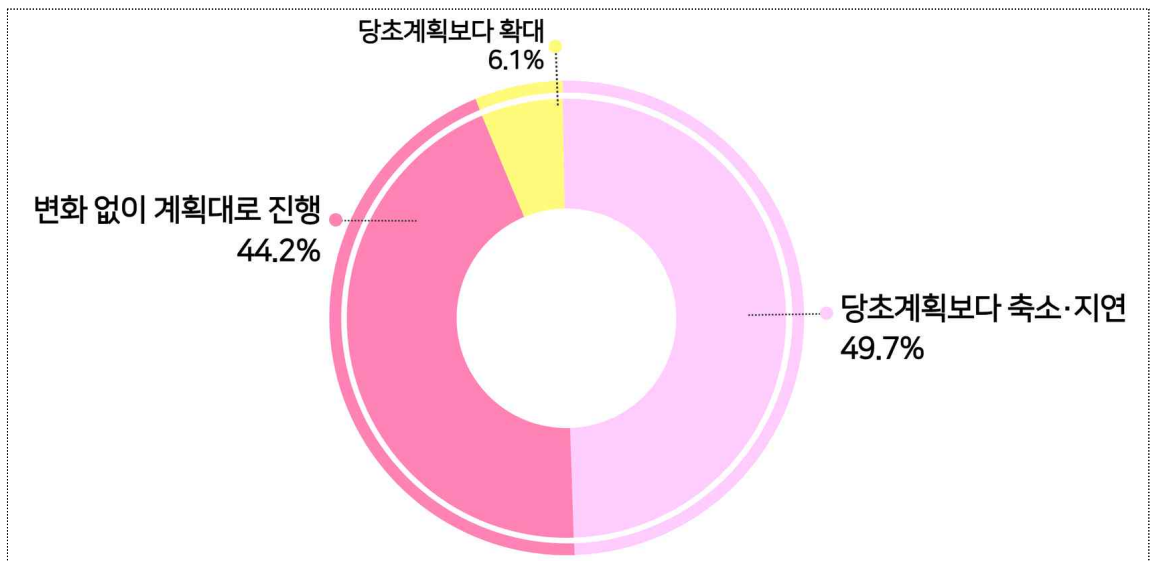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사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·내외 리스크 요인은 ‘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(33.6%)’으로 나타남
- 다음으로, ‘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’(17.2%), ‘환율 변동성 확대’(13.9%), ‘소비회복 둔화’(11.9%), ‘수출수요 둔화’(9.1%), ‘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’(8.3%), ‘관세 불확실성’(5.8%) 순으로 조사됨

<그림 4> 2026년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대·내외 리스크 요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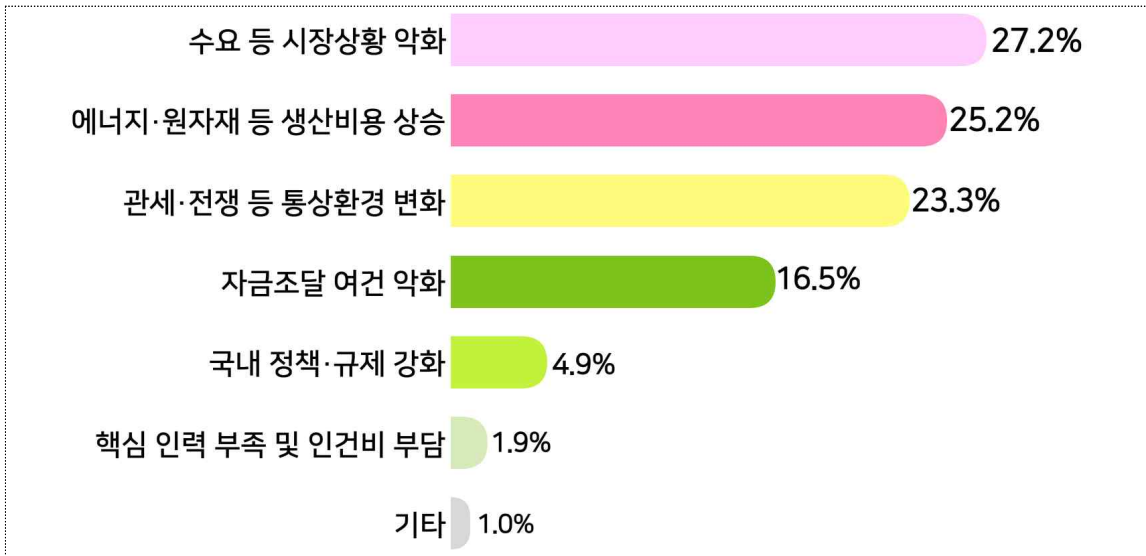
- 응답 기업의 49.7%는 2026년 상반기 투자계획이 당초계획보다 ‘축소 또는 지연’될 것으로 예상함. 2026년 상반기 투자계획을 ‘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’할 예정인 기업은 44.2%를 차지함. 한편, 2026년 상반기 투자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‘확대’할 예정인 기업은 6.1%에 그침.

<그림 5> 2026년 상반기 투자계획 대비 진행 전망



- 2026년 상반기 투자 계획을 ‘축소 또는 지연’(49.7%)하는 가장 큰 요인은 ‘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’(27.2%)로 지목됨
- 이어서, ‘에너지·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’(25.2%), ‘관세·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’(23.3%), ‘자금조달 여건 악화’(16.5%), ‘국내 정책·규제 강화’(4.9%), ‘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’(1.9%) 순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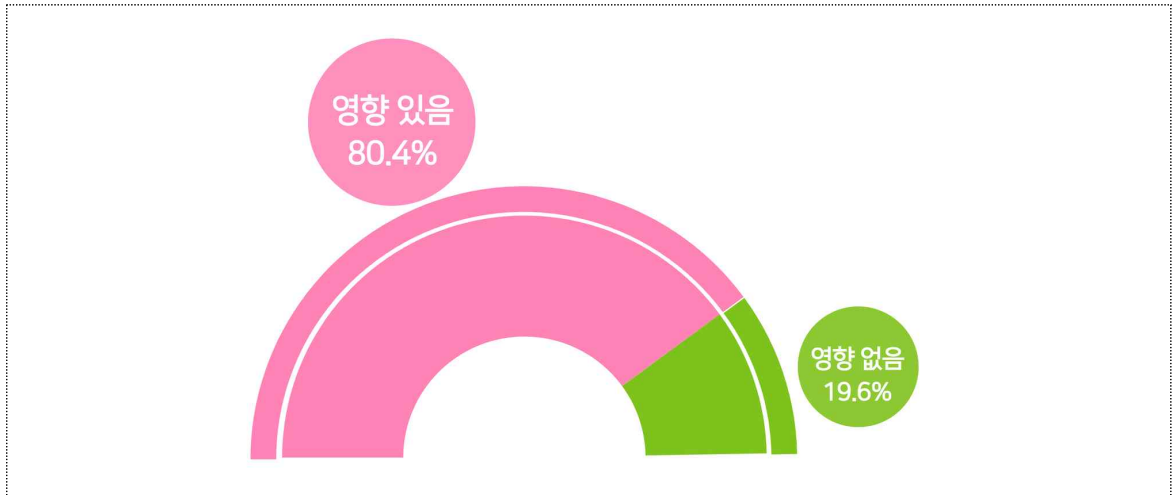
<그림 5-1> 2026년 상반기 투자 계획 축소·지연 요인



3. 중동 사태가 인천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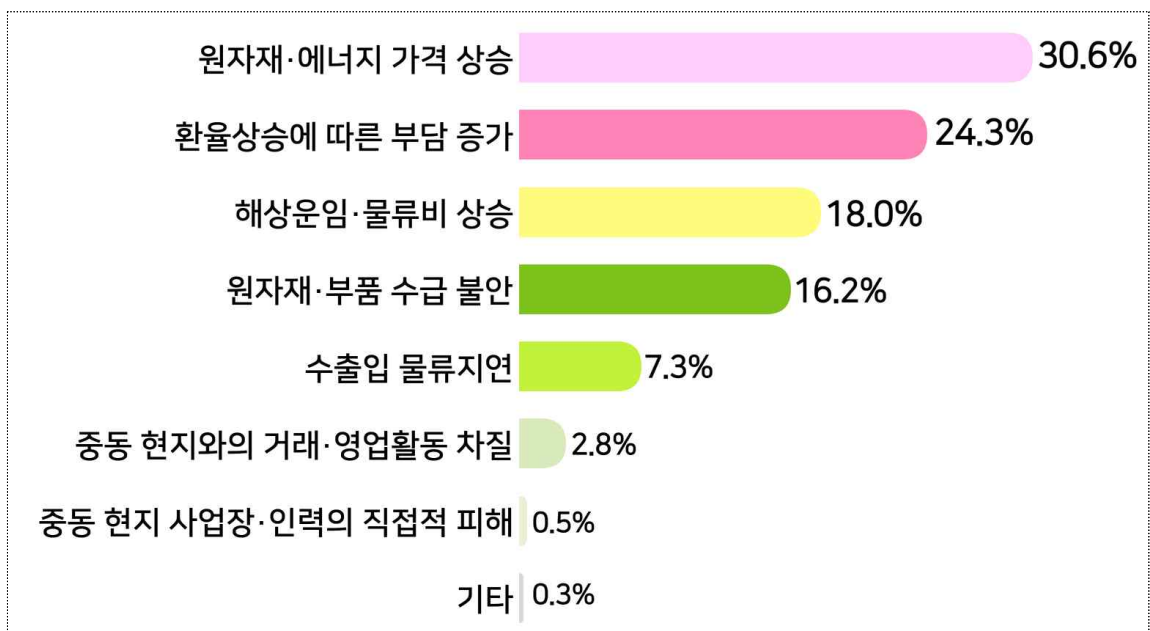
-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‘영향이 있다’고 응답한 기업은 80.4%로 조사되었으며, ‘영향이 없다’는 기업도 19.6% 나타남.

<그림 6>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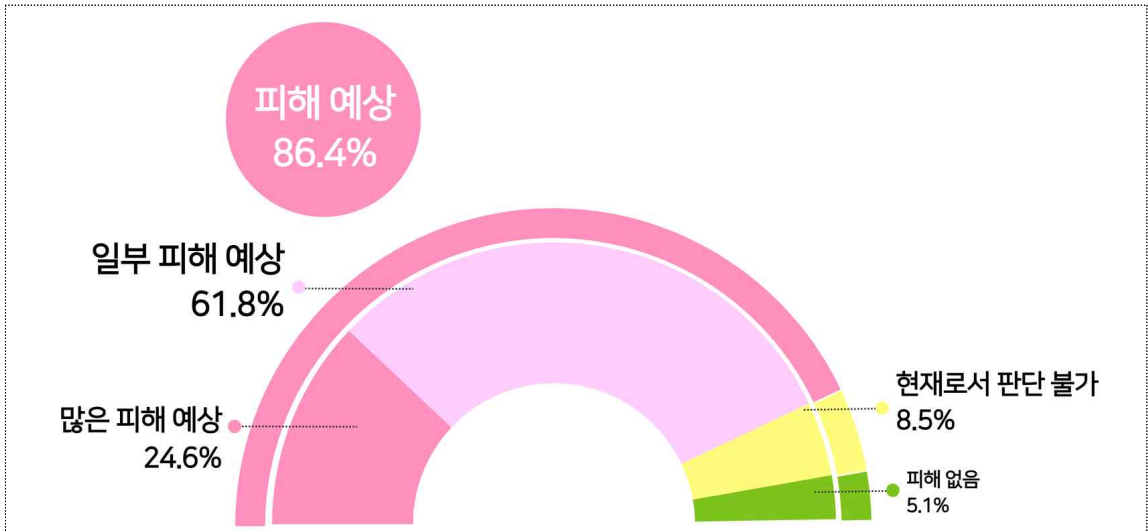
- 중동 사태로 인해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(80.4%) 제조기업들의 주요 애로는 ‘원자재·에너지 가격 상승(30.6%)’과 ‘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’(24.3%)로 확인됨
- ‘해상운임·물류비 상승’(18.0%), ‘원자재·부품 수급 불안’(16.2%), ‘수출입 물류지연’(7.3%), ‘중동 현지와의 거래·영업활동 차질’(2.8%), ‘중동 현지 사업장·인력의 직접적 피해’(0.5%)가 그 뒤를 이음

<그림 6-1> 중동 사태로 인해 발생한 기업 경영 애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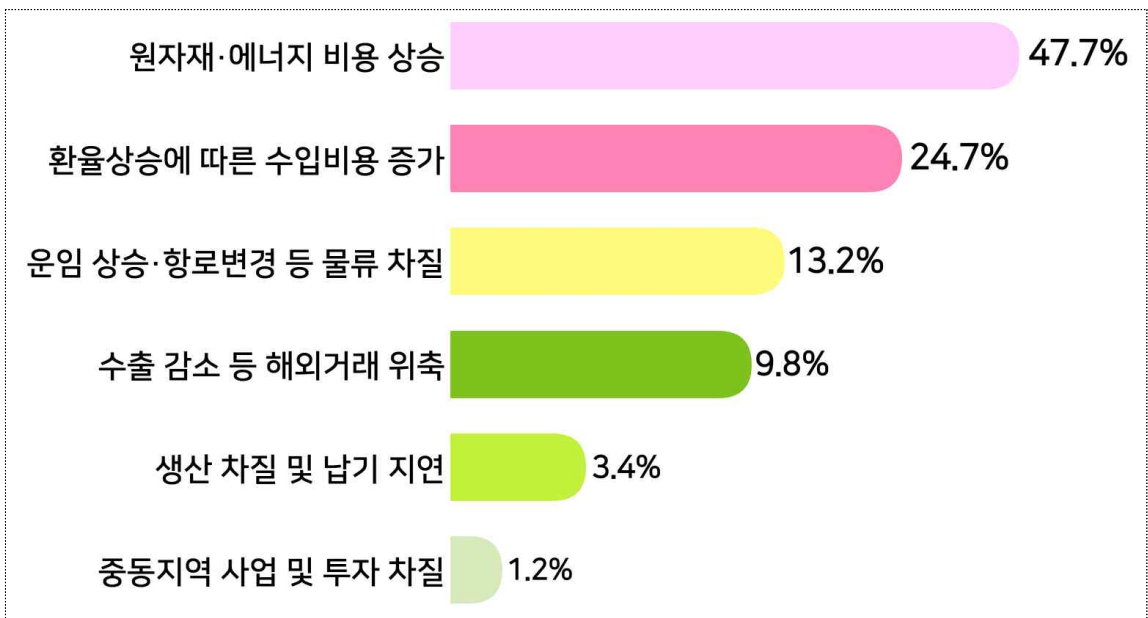
-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되었을 때 응답 기업의 86.4%('많은 피해 예상'(24.6%), '일부 피해 예상'(61.8%))가 경영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'현재로서 판단 불가' 및 '피해 없음'은 각각 8.5%, 5.1%를 차지함

<그림 7>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예상되는 경영 피해 수준



- 중동 사태 장기화 시 경영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(86.4%)들은 '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'(47.7%)을 가장 크게 우려함.
- 다음으로, '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'(24.7%), '운임 상승·항로변경 등 물류 차질'(13.2%), '수출 감소 등 해외거래 위축'(9.8%), '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'(3.4%), '중동지역 사업 및 투자 차질'(1.2%) 등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.

<그림 7-1> 중동 사태 장기화 시 가장 크게 예상되는 경영 피해



2026년 2/4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개요

1. 조사 목적

-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1/4분기 실적과 2026년 2/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개별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

2. 조사 기간

- 2026년 3월 5일 ~ 3월 18일

3. 조사 대상

-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업종별, 규모별로 추출한 350여개 다목적 조사표본업체를 대상으로 함 (응답업체 : 199개)

4. 조사 방법

- 이메일 및 팩스

5. 조사 사항

- 체감 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, 설비투자, 자금사정 등의 실적 및 전망 BSI, 영업이익 및 투자실적 연간 목표 달성 수준 등 6가지 항목

6.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의 작성

- 조사대상기간의 실적과 전망을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(증가), 악화(감소),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하였음
-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작성됨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} = \frac{\text{호전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표시업체수}}{\text{총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BSI = Business Survey Index

$$0 \leq \text{BSI} \leq 200$$

- BSI의 기준치는 100이 되며, 100 이상일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